

삶이 힘들다고 말하고 우울함에 쉽게 무릎 꿇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들을 사랑하는 일이 진정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일입니다.
사랑은 내 앞에 있는 좋은 것들과 함께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외과 뇌신경중재실 개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0월 12일 채석래 의료원장, 권범선 병원장, 최기석 일산행정처장 등 교직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경외과 뇌신경중재실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뇌신경중재실 개소에 앞서 2층에 있던 신경외과 진료실을 응급환자 치료에 적합한 1층으로 이동하고 심, 뇌혈관 및 모든 부위 혈관 중재시술이 가능한 현존하는 최신버전 최고사양의 혈관조영 기기를 도입하여 뇌혈관 질환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최상의 시스템을 마련했다. 현재 뇌신경중재실에서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 뇌혈관 질환의 치료가 365일 24시간 상시 가능하다.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국제조직공학재생의학회 아시아태평양학술대회 주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국제조직공학재생의학회 대회장으로 아시아태평양학술대회(TERMIS AP 2022)를 주재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33개국에서 1,350명이 참여하여 국제조직공학재생의학회 지역학술대회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제조직공학재생의학회는 2005년에 결성된 이후 매년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등 3개 지역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3년에 한번씩은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2009년도에 서울에서 세계대회, 2014년 대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학회를 개최한 바 있다.



총지사 주지 동진스님, 병원 발전 위해 써 달라며 1억 쾌척

총지사 주지 동진스님은 10월 12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에 병원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1억 원을 쾌척했다.

총지사 주지 동진스님은 “너무 조금이라 좀 더 모아서 기부하고 싶었지만 동국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음을 바꿨다”며 “작은 돈이지만 병원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써 달라”고 말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성장하는 마중물로 사용할 것이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화곡동 보광사, 병원 발전기금 3천만 원 기부

화곡동 보광사 주지 현담스님은 지난 10월 6일 병원을 방문하여 현담스님, 현성스님, 민성스님 이름으로 각각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기부했다. 보광사 주지 현담스님은 이번에 보광사에 약사여래부처님 점안과 불사 회향을 하면서 절도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이 의료포교의 중심도량으로 발전하기를 발원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보광사 회주 고성우스님은 2010년도에 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혈액수급 극복을 위한 헌혈캠페인 시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노동조합은 9월 30일 부족한 혈액 수급난에 도움이 되고자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2020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인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헌혈자 감소로 심각한 혈액 부족을 이겨내기 위해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 이날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이동 헌혈 버스를 통해 교직원 31명이 참여했다.



상월결사 화엄사 평화방생순례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0월 2일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에서 열린 상월결사 순례길에 참여하여 평화를 염원하며 약 6km를 걸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평화순례단과 의료지원단으로 참여했으며 평화순례단은 화엄사를 출발해 천은사에서 회향했고, 의료지원단은 지리산 시암재까지 걷는 인도순례단의 안전을 위해 순례길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2022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의료지원, 기금모연, 홍보부스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관람객 안전을 위한 의료 지원을 했다. 대외협력홍보팀에서는 의료지원과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불교병원의 발전을 위한 기금모연과 함께 홍보활동을 펼쳤다.

개막식 날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해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스님 등 많은 분들이 병원 부스를 방문하여 기부동참으로 격려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약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박람회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대처와 처치, 후송으로 주최 측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진관사 국행수륙재 의료지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일인 10월 9일에 수륙재의 안전하고 원만한 회향을 위해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여 수륙재 동참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살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조선 태조 때부터 6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모든 존재에 이르기까지 도량에 모셔 환희롭고 장엄한 법의 음식을 베풀어주는 최고의 불교 의식이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치사를 통해 “수륙대재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자리이타 가치를 발현하고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